

No.12 - 가네노 도리이

슈겐도의 수도자들은 깨달음을 얻기 위한 고된 수행의 하나로 산조가타케 산까지의 험한 길을 끝까지 걸어서 나갑니다. 가네노 도리이(銅鳥居)는 긴푸센지 절에서 출발한 수도자들이 가장 먼저 통과하는 문으로, 이 도리이를 빠져나감과 동시에 수행이 시작됩니다. 가네노 도리이는 니오몬 문(인왕문)에서 북쪽으로 약 200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.

가네노 도리이의 원래 명칭은 ‘훗신문(發心門, 발심문)’이라 하는데, 산조가타케 산으로 향하는 수도자들은 이 가네노 도리이를 포함해 총 4개의 중요한 도리이를 통과해야만 합니다.

도리이라서 신도(神道)의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, 이 가네노 도리이는 두 개의 기둥이 연꽃 위에 놓인 형태를 취하고 있어 불교식 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.

원래의 도리이는 나라현 도다이지 절(東大寺)의 대불을 제작할 때 쓰고 남은 구리(가네)를 사용해 만들었다고 합니다. 현재의 도리이는 무로마치 시대(1136~1573)에 재건된 것입니다.